

# 생애주기별 의사소통 과업과 교육

전은주 부산대학교

- I. 서론
- II.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과 의사소통에서의 과업
- III. 생애주기와 의사소통 역할 변화
- IV. 생애주기별 의사소통 교육의 현황
- V. 생애주기별 의사소통 교육의 지향점

## I. 서론

이 연구는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에 비추어 각 시기별 의사소통 과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생애주기별 의사소통 교육의 현황과 발전적 교육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sup>1</sup> 생애주기의 구분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본고에서는 1-19세를 아동·청소년기, 20-64세를 성인기, 65세 이후를 노년기로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sup>2</sup>

인간의 생활에서 의사소통을 분리할 수 없듯이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생활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이렇다 보니 인간과 인간의 생활에 대하여 탐구하는 여러 학문 영역에서 각 학문 영역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어학에서, 이러한 의사소통이 인간의 심리나 사회생활에 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심리

1 본고에서 '의사소통'은 '구두 의사소통'에 한한 것임을 미리 밝힌다.

2 생애주기 구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2장 참조.

학, 사회학 등에서, 유아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유아교육학에서, 초·중·고등학생들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국어교육학에서, 가족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가정교육학에서, 성인과 노인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평생교육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간호학, 정신의학 등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다. 한 사람이 발화한 시점의 장면만을 놓고 보면 의사소통의 내용과 방법은 개별 의사소통자의 인식과 발화, 상황의 문제이지만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두 사람 이상 참여자 간의 관계에 영향을 받으므로 아동과 부모, 청소년 자녀와 부모, 조부모와 손자녀, 성인 자녀와 노부모 등 주로 가족관계 내 의사소통이나 아동과 또래 집단, 청소년과 또래 집단, 학생과 교사 등과 같이 학교 사회 내 의사소통,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등과 같이 직장 의사소통 등 참여자가 소속된 집단 내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그 변인에 대한 탐색, 변인 간의 관련성 등이 연구 주제로 다루어졌다.<sup>3</sup>

일반적으로 국어교육학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의 국어사용 능력 신장에 주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다. 특히 화법교육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구어 사용 양상과 이들이 학교생활, 일상생활, 사회생활 등에서 효과적으로 말하고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수-학습 내용, 방법, 평가 등의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국어교육학을 교과교육의 하나로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국어교육이라는 협의의 범위를 벗어나 한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사람의 언어 사용 능력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분야로 적용 대상을 넓혀 본다면, 인간의 생애에서 각 시기별로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역시 주요 연구 영역이 될 수 있다.<sup>4</sup>

3 인간의 생애주기별 의사소통에 대한 특성과 이에 따른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연구는 어느 특정 학문 분야에 한정되어 연구되기보다는 인간 의사소통, 언어, 사회, 교육 등 관련 제 학문 분야의 학제적 연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박영목 외(2005: 20)에서는 국어교육 현상은 그 분야를 기준으로 학교에서의 국어교육,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국어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육의 대상이었던 학령기, 청소년기를 넘어 의사소통 교육을 인간 생애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기 위하여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 과업을 살펴보고, 생애주기별 의사소통의 차이를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 생애주기 구분에 따라 주기별 의사소통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적 교육 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sup>5</sup>

## II.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과 의사소통에서의 과업

### 1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

생애주기란 인간이 살아 있는 한평생 동안 특정 관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같은 현상이나 특징이 한 번 나타나고부터 다음번 되풀이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생애주기를 구분하기도 하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과 역할에 따라 생애주기를 구분하기도 한다. 또 가족의 생성과 성장 과정에 따라 가족 생애주기를 구분하기도 한다.

개인의 생애에서 성숙, 노화 등의 과정이 생리적 연령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생애주기를 역연령(曆年齡, chronological age)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생애주기별로 구체적 연령은 개인적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입학, 진학, 취업, 결혼, 출산, 퇴직 등의 과정을 거치며

---

사회에서의 국어교육, 가정에서의 국어교육 현상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국어교육학에서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학교에서의 국어교육 현상이며, 그리고 사회에서의 국어교육과 가정에서의 국어교육 현상은 국어교육학의 이차적인 관심 분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술한 바 있다.

5 이 논문에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같이 생애주기별 의사소통교육 역시 국가 주도 교육에 한하여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가정적, 사회적으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은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생애주기 유형화는 연구와 정책의 목적에 따라 집단 유형화를 달리하는데, 「새로운 복지지표체계 발굴 및 정책과의 연계방안(2010년)」의 신복지체계에서는 생애주기별 핵심 복지지표의 도출을 위해 생애주기를 ‘아동·청소년기’(0~24세), ‘성인기’(25~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구분하고, 각 생애주기별 핵심 복지지표를 도출하였다(박시내 외, 2013: 183). 또 개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분석한 박시내 외(2013: 184)에서는 생애주기 대분류 수준에서 아동·청소년기(0~19세), 성인기(2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중분류 수준에서 아동·청소년기는 영·유아기(0~5세), 아동기(6~12세), 청소년기(13~19세)의 세 집단으로, 성인기는 청년기(20~29세), 장년기(30~49세), 중년기(50~64세)로, 노년기는 노년기(65~84세), 초고령기(85세 이상)의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가장 최근의 인구센서스 조사인 2010년의 결과가 반영된 박시내 외(2013)에 따라 생애주기 구분을 하고자 한다.

인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있으며, 각 이론은 운동, 인지, 사회성 등 발달에서 강조하는 특수 분야가 있다(박호란 외 역, 2013: 20). 예를 들어 Piaget는 인지 발달을, Freud는 심리 성적 발달에, Erikson은 생애주기 단계에 따른 사회심리 발달에, Bronfenbrenner는 사회적 발달에 주목을 한 바 있다. 인간의 생애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의 연속이므로 인간의 발달은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 생애 발달 이론이 등장하기 이전에 발달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발달을 청년기까지로 종결되는 것으로 이해했으나 인간이 전 생애에 걸쳐 발달함이 확인되어 이후의 학자들은 노년기까지의 발달 단계와 노년기의 발달 과업을 규명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왔다(한정란, 2009: 136).

Erikson(1976)에서는 사회적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성격 발달의 각 부분을 8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각 단계는 사회적 과업 또는 위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과업을 성공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기 위해서 적

극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박호란 외 역, 2013: 36).

**표 1.** 에릭슨의 생의 8단계와 발달(김애순, 2002 재구성)

| 단계(연령)      | 주요 사회적 관계의 범위                | 과업 또는 위기                           |
|-------------|------------------------------|------------------------------------|
| 영아기(0-1.5)  | 어머니 등 양육자                    | 나는 세상을 신뢰할 수 있는가?                  |
| 유아기(1.5-3)  | 부모                           | 나는 나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가?            |
| 학령전기(3-6)   | 가족                           | 나 자신의 한계점을 탐구함으로써 부모에게서 독립할 수 있는가? |
| 학령기(6-11)   | 또래집단, 교사                     | 적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숙달할 수 있는가?        |
| 청소년기(11-18) | 또래집단, 외부집단                   |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신념, 감정, 태도는 무엇인가?      |
| 청년기(18-40)  | 친구, 이성 친구, 경쟁 및 협력 관계에서의 파트너 | 다른 사람에게 내 진심을 전적으로 줄 수 있는가?        |
| 중년기(40-65)  | 직업적 관계의 사람                   | 다음 세대에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
| 노년기(65이후)   | 인류 자손                        | 전 생애의 '일'과 '놀이'를 통하여 의미와 만족을 찾았는가? |

위 <표 1>을 보면 생애주기 8단계 중 청년기 이전의 5단계보다 청년기 부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세 단계가 인생에서 더 길고 사회적 관계의 범위도 넓다. 청소년기까지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핵심 발달 과업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청년기와 중년기에는 ‘타인의 관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발달 과업이 된다. 즉 청년기에 이르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과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성 친구를 만나고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중년기에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고 직업 세계에서도 선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 과업이 된다.

한편 성인발달 심리학자인 Levinson은 Levinson(1978, 1996)에서 남성 40명과 여성 45명을 대상으로 전기적 면담 연구를 통하여 남성과 여성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통찰력 있게 제시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인간의 인생주기 변화 과정은 보편성을 띠며 남성과 여성은 성별이 다르지만 인생이 진행되는 양상은 매우 유사하다고 보고 있

다. Levinson(1978, 1996)에서는 인간의 생애를 사계절에 비유하여 성인 이전기, 성인 초기, 성인 중기, 성인 후기로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한 시대는 약 25년간 지속되며 그 안에는 4-7년간 지속되는 입문기, 전환기, 절정기 등으로 연이어져 있다. 또 이 시기들은 전환기(transition)를 거쳐 다음 시기로 넘어간다는 것이다. 전환기는 기존 삶의 구조를 수정하며 혼돈과 갈등을 겪지만 이 과정에서 성장과 발달을 하며 안정된 시기로 이행할 수 있는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한다.

김중서 외(1982)에서는 한국인의 삶을 유아기(1-5,6세), 아동기(6-11,12세), 청년 전기(12-18,19세), 청년후기(19-24,25세), 성인 전기(25-35세), 성인 후기(35-60세), 노년기(60세-)와 같이 7단계로 구분하여 지적,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영역의 발달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생애 발달 과정에서 개인의 행동은 자신, 가족, 사회, 문화, 환경, 경험 등의 복합적 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김중서(1982)의 생애주기에서 ‘청년 후기’와 ‘성인 전기’의 사회적 과업의 결정적 차이는 결혼과 출산 유무에서 비롯된다. 노년기는 소득 수준의 향상, 개인 영양, 의학 발전 등과 사회 문화적 변화에 따라 과거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던 것에서 최근에는 65세 이상, 혹은 70세부터 시작 된다고 인식하는 등 그 기준이 변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로 은퇴를 하고 자녀 결혼 이후 손자가 생기는 등의 사회적 역할 변화를 통해 노년기가 되었다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sup>6</sup>

인간의 의사소통은 대화 참여자의 자기 인식, 타인에 대한 인식,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인식에 대한 인식 등이 반영되어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로 표

6 통계청(2014)에서는 우리나라의 2010년 인구센서스 조사를 분석해 보면 초혼 연령이 남성 24.8세, 여성 20.5세(‘30년생’)에서 남성 28.8세, 여성 25.7세(‘70년생’)로 최근 출생코호트일수록 초혼연령은 상승 추세라고 밝히고 있다. 또 ‘90~’10년 기간 중 청년기의 학업기간 연장 등에 따른 노동시장 진입시기의 지연으로, 청년기(20~29세)의 취업인구 비중은 하락한 반면, 은퇴시기의 지연으로 중년기(50~64세) 및 노년기(65~84세)의 취업인구 비중은 상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통계청, 2013: 13). 이러한 변화는 향후 생애주기 구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되고 이해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인간이 생애주기에 따라 어떤 발달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각 생애주기에 따른 인간 의사소통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김종서 외(1982), 김애순(2004) 등의 생애주기별 지적, 정의적 사회적 영역의 발달 과제를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발달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생애주기별 발달 과제(김애순, 2004: 43 재구성)**

|                   |                | 지적 영역                                                                         | 정의적 영역                                                                   | 사회적 영역                                                                         |
|-------------------|----------------|-------------------------------------------------------------------------------|--------------------------------------------------------------------------|--------------------------------------------------------------------------------|
| 아동·청소년기<br>(1-19) |                | 기초 의사소통 능력 기르기<br>인지적 기능 증진시키기<br>교과 지식, 기능 익히기<br>사회적 기능 획득하기                | 자율성, 솔선성, 근면성<br>기르기<br>자기정체성 찾기                                         | 또래 집단 사귀기<br>학교생활 잘하기<br>다른 사람과 협력하기                                           |
| 성인기               | 청년기<br>(20-29) | 결혼 및 직업 생활 준비<br>사회적 지식, 전문 넓히기<br>국내외 관계에 대한 식견<br>갖기                        | 독립적인 생활태도, 건전한<br>생활관의 확립<br>전문적 가치관을 생활에<br>조화<br>도덕적 판단력과 행동 함양        | 적절한 결혼 대상 찾아<br>교제<br>가정의 문화적 차이 이해<br>가정과 사회의 책임과 역할<br>수행                    |
|                   | 장년기<br>(30-49) | 합리적 가정 관리<br>부부생활 위한 성 지식<br>습득<br>경력과 사회생활 위한<br>지식, 기능, 식견 넓히기<br>청소년 자녀 교육 |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 유지<br>성공적 자녀 교육<br>직장에서 원만한 인간관계                             | 성공적 부모 역할<br>만족스런 직무 수행<br>풍부한 사회생활 영위하기                                       |
|                   | 중년기<br>(50-64) | 경제적 생활 수준 유지하기<br>직무에 필요한 새로운<br>지식과 능력<br>사회변전에 적응할 수 있는<br>지식               | 배우자, 자녀와의 인격적<br>관계 유지하기<br>새로운 가족을 맞아<br>융화하기<br>취미와 여가 활동<br>젊은 층 이해하기 | 부모 역할과 책임 수행하기<br>연로한 부모 봉양<br>사회 연장자로서 역할과<br>처신<br>사회 발전을 위한 참여,<br>미풍양속의 실천 |
| 노년기<br>(65세 이상)   |                | 세대차이와 사회변화<br>이해하기<br>은퇴생활에 필요한 지식과<br>생활 익히기                                 | 적극적 생활 태도<br>취미와 여가생활<br>소외감 극복하고 삶의 의미<br>찾기<br>죽음 수용하고 준비하기            | 친구 관계 유지<br>일, 책임 물려주기<br>가정과 사회에서 연장자<br>역할하기<br>자녀, 손자들과 원만한<br>관계 유지        |

## 2. 생애주기별 의사소통 과업

인간의 생애주기의 구분에는 특정 시기에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해나가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애주기는 역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시기 적용 연령에 개인적 차이가 있지만 접하게 되는 개인적 사회적 상황이 유사하고 각 시기별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보편성을 띠고 있다. 인간의 생애주기별 발달 과제는 한 개인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필요한 과업이며 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현해야 할 것으로 주어진 상황과 역할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생애주기별 발달 과제의 성취는 개인이 사회 구성원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애주기별 발달 과정에서 직면하는 의사소통 과업과 이러한 과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적 지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앞서 <표 2>의 인생주기와 발달 과제에서 보듯이 아동·청소년기는 부모의 양육을 받고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인간 의사소통을 위한 기초적 기능을 익히는 시기이다. 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자아개념,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는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친구를 사귀고 학교에서 원만한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 개인 정체감을 확립하고 또래 집단과 더 성숙한 교류를 하게 되며 상위 학교로 진학을 해야 하므로 의사소통 상황, 목적에 따라 상대를 존중하며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성인기는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64세에 해당하는 매우 긴 기간이다.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신체적으로도 성숙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만 19세가 지나면 법적으로도 성인으로 인정받는다. 성인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한 인간으로서 자립하며 가족을 이루고 가장 활발하게 살아가는 시기이다. ‘청년기’는 직업 생활, 결혼 생활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성과 만남, 교제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성

을 이해하고 존중, 배려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하며, 직업 세계에 진입하여 유능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필요한 직무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고 가정과 학교에서 보호받던 청소년기와 달리 ‘청년기’는 독립적인 생활 주체로서 책임이 요구되며 사회적으로 인간 관계망을 넓혀가는 시기이므로 의사소통의 관계적 목적을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소통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년기’의 가장 특징적인 발달 과업은 부모 역할의 수행이다. 이 시기는 자녀가 인지적, 정의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돕고, 독립적으로 정체감을 형성하고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애정 어린 관심과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며, 부모가 자신들의 생각과 방식으로 강요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자녀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고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김유경 외, 2009: 56). 최근에는 결혼을 선택 사항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고 출산을 통해서만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양을 통해서도 부모가 될 수 있으나, 성인이 사회적 연장자로서 유아, 학령기, 청소년기의 세대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순기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결혼 유무를 떠나 ‘장년기’에는 좋은 부모 혹은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

또 ‘중년기’에는 배우자, 자녀와 인격적 관계를 유지하고 직장 내에서도 역할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젊은 층을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의사소통 기능을 습득하여야 하고, 자녀나 젊은 세대들의 의사소통 문화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태도가 필요하다.

‘노인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정과 사회에서 최고 연장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는 퇴직을 하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스스로 노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에는 65세 이후에도 직업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다. 노인기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전 생애를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후세에 전

해 주고, 일과 사회적 역할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발달 과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가정적으로는 배우자, 자녀, 손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관용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생애주기별 의사소통 과업은 주요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어떤지, 가정적 사회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각 시기별 의사소통 과업은 신체적 성숙,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자연적으로 도달되는 부분이 아니라 의사소통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과제를 이해하여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할 때 성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 이후 놓여 있는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노인기의 발달 과업 성취에 필요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한 개인의 성공적인 삶을 건인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 형성과 성공적인 세대교체 등을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III. 생애주기와 의사소통 역할 변화

#### 1. 의사소통자로서 역할의 개념

인간의 삶이 가정과 사회를 축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에 따라 발달 단계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노출되는 의사소통 상황은 대부분 가정 내 의사소통과 직장 혹은 사회 의사소통의 테두리 안에 있다. 의사소통은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이다. 이때 두 사람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관계’라고 한다. ‘관계’는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어떠한 법칙으로 그것을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이찬규 옮김, 2003: 181). 그러나 사회생활에 어떤 질서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관계’를 범주화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관계 유형을 아는 사이, 친구, 친밀한 사

이, 배우자, 부모와 자식, 형제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임철성 옮김, 1997: 244). 사람은 태어나면서 가족 관계를 가지게 되고, 결혼을 하거나 직업을 가지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 살게 된다.

이러한 ‘관계’의 형성, 유지, 발전, 쇠퇴, 단절 등에는 의사소통이 개입을 하게 된다. 의사소통에서 참여자로서 해야 할 직책이나 임무를 ‘역할’이라고 한다. 의사소통에서 ‘역할’은 소통 장면에서 발화 여부에 따라 화자, 청자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모두 의사소통 참여자이고 모두 화자와 청자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므로 의사소통에서 인간관계 내에 발생하는 ‘역할’과 이러한 ‘역할’이 의사소통 과정에 인간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모든 관계 내 의사소통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역할을 가지는데 의사소통자로서의 역할은 크게 외현적 역할과 내재적 역할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외현적 역할은 두 사람의 관계에 따른 역할 구분으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할아버지와 손녀, 선생님과 학생,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등과 같이 소속된 집단 속에서 밖으로 드러난 임무, 나이, 지위 등에 의해 결정된다. 가족 관계에서 발생한 외현적 역할은 고정되지만, 사회생활에서 형성된 관계 내 외현적 역할은 변화하기도 한다. 회사에서 동료 관계로 만난 상사와 부하 직원은, 부하 직원이 먼저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을 하는 경우에 상사와 부하 직원의 역할은 바뀌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 인간관계에 따른 외현적 역할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 또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힘의 관계’에 따라 상하관계, 수평관계로 구분하기도 하고 ‘유대 관계’에 따라 친밀한 관계와 친밀하지 않은 관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상하관계에 따른 외현적 역할은 위사람, 아랫사람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나 유대관계는 ‘친밀감’이라는 정서적 요인에 의해 관계를 구분한 것으로 유대관계만으로는 외현적으로 구체적 역할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비해 내재적 역할은 두 사람 간에 의사소통에서 상대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태도에 따른 역할 구분이다. 지지자, 격려자, 수용자, 협조자, 인도

자 등과 같은 긍정적 태도를 가진 역할이 있는 반면 비판자, 경쟁자, 방해자, 거부자 등과 같이 부정적 태도를 가진 역할도 있다. 이같이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따른 내재적 역할은 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의 내용과 방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내재적 역할은 두 사람의 인간관계 형성 초기에 결정되기도 하지만 특정 사건이 계기가 되어 바뀌기도 한다. 또 내재적 역할은 외재적 역할처럼 소속 사회 내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대에 대해 가지는 심리적 태도이므로 개인이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못할 때도 있다.

내재적 역할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상대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가진 지지자, 격려자, 수용자, 협조자, 인도자 등의 역할은 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게 하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부정적 태도를 가진 비판자, 경쟁자, 방해자, 거부자 등의 역할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하게 하며 관계의 쇠퇴, 단절에 이르게 하기도 한다.

## 2.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 역할 변화

사람은 생애주기의 발달 단계에 따라 가정 내, 직장 내 의사소통에서의 의사소통자로서의 역할이 변화한다. 개인은 발달 과정에 따라 자녀의 역할에서 자녀, 부모, 조부모로 역할이 늘어나게 되어 한 가정 내에서 자녀이면서 동시에 부모, 조부모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외현적 역할이 바뀌기도 한다. 청년기 때 동시에 입사를 한 직장 동료 관계가 장년기에 이르러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으며, 대학 선후배 간의 관계가 후에 후배가 직장 상사가 되고 선배가 부하직원이 되는 역할 변화를 겪기도 한다.

또 의사소통자로서의 내재적 역할 역시 변화한다. 아동기에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수용자적 역할을 하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비판자적 역할을 취하기도 한다. 또 부모 역시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라 자녀에 대한 심리적 태도에 변화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유아나 아동기 때에는 격려자의 역할을 하

|    |             |     |     |     |     |     |     |
|----|-------------|-----|-----|-----|-----|-----|-----|
| 부모 | 중년기         | 노년기 |     |     |     |     |     |
|    | 20세         | 30세 | 40세 | 50세 | 60세 | 70세 | 80세 |
| 나  | 청년기         | 장년기 |     | 중년기 |     | 노년기 |     |
|    |             |     |     |     |     |     |     |
| 자녀 | 유아, 아동 청소년기 |     |     | 청년기 | 장년기 |     | 중년기 |
|    |             |     |     |     |     |     |     |

**그림 1.** 세대 간 개별 생애주기 변화

지만 청소년기 자녀에게는 비판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성장, 발달이나 외부의 힘에 의하여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인간관계 내 의사소통에서 역할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의사소통에서 외현적 역할의 변화가 내재적 역할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외현적 역할의 변화 없이 상황이나 개인의 심리적 변화에 따라 내재적 역할이 변화하기도 한다. 의사소통에서 상호 간의 역할 기대가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자주 발생된다(임철성 옮김, 1995: 361). 성인기와 노년기의 가족 의사소통, 직장 의사소통에서 상대의 역할이 변화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한 채 기존의 의사소통 방식을 유지하는 경우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성인기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가족 의사소통 부분에서 이루어졌는데, 부부 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갈등과 요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청년기에 결혼을 하고 가족을 구성하게 된 경우라면 부모-자녀의 개별 생애주기 변화가 다음과 같이 발생하게 된다.

〈그림 1〉과 같이 ‘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장년기에는,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이행하는 부모가 있으며 유아, 아동, 청소년기로 급속히 성장하는 자녀가 있어 의사소통에서 여러 역할에 처하게 된다. 앞서 〈표 2〉에서 성인기 중 장년기에는 청소년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 성공적인 교육을 중요 발달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듯이 이 시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세대 간의 상이한 발달 욕구와 역할에 대한 기대로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여러 갈등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이미 청소년 자녀를 둔 장년기의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노년기에 접어 든 부모가 가정 내에서의 역할, 책임 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 않는 의사소통을 할 경우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도 갈등을 겪게 된다. 즉, 부모와 자녀라는 의사소통자로서의 관계 - 외현적 역할은 같으나 자녀가 성인이 되고 가정을 가지고 사회적 역할을 하며 성장을 하게 되면서 부모와 자녀가 내재적 역할 변화에 맞게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미숙한 자녀를 돌보고 책임지는 역할에서 성숙한 자녀를 지지하고 결정권을 이양하고 삶의 지혜를 전수해 주는 전승자, 조언자 역할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자녀 역시 의존적 역할에서 독립적 성인으로서 책임있는 역할과 노년기로 이행하는 부모를 이해하고 앞 세대의 정신적 유산을 존중하며 이어가려는 계승자로서의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sup>7</sup>

전 생애 발달에 대한 통합된 모형을 제시한 Baltes(1987)에서는 생애 발달에서 중다 방향성, 개인 내 가소성, 개인 간 다양성 세 가지를 강조한 바 있다. 요컨대 인간의 발달이 다양한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차원마다 시작과 끝, 지속, 그리고 발달의 방향이 다를 수 있으며, 개인은 다양한 내적 외적인 변화에 대해 보이는 탄력성, 즉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개인의 잠재력이 있으며, 나이가 들면서 사람마다 변화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김애순, 2004: 15). 특히 Baltes & Baltes(1990)에서는 개인 내 가소성(plasticity)이 성공적 노화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며, 연령 증가와 함께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안정의 정도는 그가 소유한 가소성에 의존한다고 보고 있다.

---

7 Galvin & Brommel(1986)에서는 가족은 의사소통을 통하여 정서적인 결속과 융통성에 대한 능력을 발전시키며 의사소통은 가족이 응집과 적응의 축 위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므로 의사소통과 가족은 상호영향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즉, 의사소통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가족관계 역시 의사소통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의사소통이 응집과 적응을 규제한다는 점은 가족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조직 등 어떤 집단이든 그 집단 내 의사소통 전반에 통용된다.

특정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통시적 관점에서 보면 개별 구성원의 생애 발달은 의사소통 상황의 역동적 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각기 의사소통자로서의 역할에 변화가 생기므로 상호간의 역할 조정을 거쳐 역할 적응이 되어야 비로소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의사소통을 통한 응집 역시 가능하다. 생애 발달에서 개인 내 가소성은 의사소통에서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 변화에 적응하게 하여 발달 단계에 주어진 의사소통 과업을 수행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 IV. 생애주기별 의사소통 교육의 현황

### 1. 아동· 청소년기의 의사소통 교육

인간은 태어나서 부모, 주변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말을 배운다. 우리나라의 경우 만 3-5세의 유아는 ‘누리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6호)’에 따라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누리과정’의 교육 목표 중 하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과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기른다’로 유아가 가정의 범위를 벗어나 최초로 사회생활을 경험하며 인간관계 속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배우도록 설계되어 있다. 현재 누리과정에는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영역별 교육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 중 의사소통 영역에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는 태도와 이해하는 능력을 기른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능력을 기른다’와 ‘사회관계’ 영역의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알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조절한다’ 등이 이 시기 아동의 의사소통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다.

만 6세 이후 학령기가 되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본격적인 교과 학습을 하게 되는데 구두 의사소통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이 시기부터 시

작된다. 현행 국어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14호)에서는 1학  
 년에서 9학년의 듣기·말하기 영역에 대화, 연설, 토의, 토론, 면담 등의 담  
 화 유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 내용이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출  
 고, 2013). 또 고등학교 ‘국어I’, ‘국어II’, ‘화법과 작문’ 과목에서도 구두 의사  
 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국어과 교육의 목표 중 하  
 나인 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인데, 이에 말하고, 듣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포  
 함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국어과 교육에서의 의사소통교육은 학교생활, 일  
 상생활, 사회생활 등 학생들이 접하게 되는 사회 전반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을 하면서도 특히 초·중·고등학생의 교과 학습에 필  
 요한 의사소통 능력으로서의 듣기, 말하기 능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밖에 중학교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에도 ‘가족과 가족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가족이 가지는 소  
 중한 가치를 내면화하며,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능  
 력 및 갈등 해결 능력을 기른다’와 같이 가족 내에서의 의사소통 능력과 갈  
 등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육 내용이 성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  
 다. 또 고등학교 선택과목인 ‘기술·가정’ 과목의 ‘가정생활’ 영역과 ‘가정과  
 학’ 과목의 ‘결혼과 가족생활’ 영역에서도 가족의 역할과 기능에 초점을 두  
 고 가족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청소년기의 의사소통교육은 국어과 교육을 주축  
 으로 이루어지는데 학습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가족 의사소통, 사회적 의사  
 소통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구두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할 수 있게 교육 내  
 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박재현(2014: 278)에서 지적되었듯이 국어과 교  
 육에서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에 대해서는 거친 욕설이나 폭언 등을 정화하  
 려는 접근 또는 십대들이 쓰는 은어로 인한 세대 간 불통 현상을 완화하려는  
 접근 정도를 시도하고 있는 실정이고 학생이 부모와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교육 내용과 방법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또 실과(기술·가  
 정) 교육에서 가족 내 의사소통에 대하여 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수-학습 시

간이 매우 적고 교사의 이론 설명 중심 교수-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의 실제 의사소통 문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 2. 성인기의 의사소통 교육

성인기는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로 생애 발달사적 측면에서 보면 가장 역할 변화가 큰 시기이다. 특히 결혼을 하여 배우자가 생기고 자녀가 출생함으로써 가정 내에서 새로운 역할이 주어지고, 배우자, 부모, 자녀로서 세대 간 의식, 문화 등의 차이로 의사소통에서 갈등을 겪기 쉬운 시기이다.

청년기의 의사소통 교육은 주로 대학생에게 성인 역할에 맞는 대인 의사소통 방법과 향후 직업 세계에 필요한 직업 의사소통 방법을 익히게 하는 것이다. 또 이 시기에는 가족을 형성하고 부모가 되었을 때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자녀의 의사소통법에 대한 교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학생이 수강하는 부모교육은 결국 예비부모교육이다. 결혼 전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개인적으로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남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교육은 가족 내에서의 아버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일이기도 하다(이정주·이종연, 2014: 961). 여성가족부 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족교육,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 아버지교육, 가족성장아카데미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교육 프로그램 중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예비부부교육’, ‘신혼기부부교육’ 등에 남녀의 대화 방법 차이를 이해하게 하고 부부의 의사소통 교육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전국 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실시되고 있다.<sup>8</sup>

---

8 종교 단체, 사설 교육 단체, 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비부부, 예비부모, 학부모 등을

|                                                                                                                                                                                                                                                                                                                                                                                                                                                                                                                                                                                                                                                                                   |                                                                                                                                                                                                                                                                                                                                                                     |
|-----------------------------------------------------------------------------------------------------------------------------------------------------------------------------------------------------------------------------------------------------------------------------------------------------------------------------------------------------------------------------------------------------------------------------------------------------------------------------------------------------------------------------------------------------------------------------------------------------------------------------------------------------------------------------------|---------------------------------------------------------------------------------------------------------------------------------------------------------------------------------------------------------------------------------------------------------------------------------------------------------------------------------------------------------------------|
|  <p><b>2014 예비부부교육</b><br/> <b>"당신만의 미래와 가족을 깨워드립니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 시 : 2014년 12월 6일(토) 14:00~16:00 (70명)</li> <li>* 내 용 : 결혼과 성, 남녀 간의 차이, 결혼관 성립, 남녀 간의 의사소통 기술, 성격 유형검사 및 문화프로그램</li> <li>* 장 소 : 온정관학빌 세미나룸</li> <li>* 대 상 : 예비부부, 신혼7부부, 20세 이상미혼 남녀 30명 (배우자 동반)</li> <li>* 주 최 : 아산가족재단(주)가족행복연구소(아산가족행복연구소, 아산가족행복연구소장) (주최)</li> <li>* 후 원 : A+ 아산시</li> <li>* 신 청 : 병행 및 전화접수</li> <li>* 문 의 : 041-546-9779 (평일 9시~18시)</li> </ul> <p><b>아산가족재단가족행복연구소(주)가족행복연구소</b><br/>   전 화 : 041-546-9779 팩 스 : 041-546-9579 홈페이지 : asan.familynet.or.kr</p> | <p><b>‘우리 부부’</b><br/> <b>대화가 달라졌어요!</b></p>  <p>우리 부부의 대화는 왜 이리 답답할까요?<br/>   내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의 마음을 도대체 줄 수 있는<br/>   의미 있는 시간에 초대합니다.</p> <p>일 시 : 2014년 12월 6일(토) 13:00~16:00<br/>   장 소 : 태권장학사 전용강제원센터 대 교육실<br/>   대 상 : 부부 10명<br/>   내 용 : 부부 대화법<br/>   강 사 : 한복선(충남대학교)</p> |
| <p>대상: 예비부부, 신혼 부부, 20세 이상 미혼 남녀,<br/> 30명<br/> 내용: 남녀 간의 차이, 결혼관 성립, 남녀 간의<br/> 의사소통 기술 등</p>                                                                                                                                                                                                                                                                                                                                                                                                                                                                                                                                                                                    | <p>대상: 부부 10쌍<br/> 내용: 부부 대화법</p>                                                                                                                                                                                                                                                                                                                                   |

자료 1. 성인기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의 예<sup>9)</sup>

장년기와 중년기의 의사소통교육은 주로 부부, 부모-자녀 간의 가족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것이다. 행복한 가족 안에서 건강한 자녀 양육이 가능 하므로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등에서 이 시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지원 정책’ 에 따라 전국 각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중 청소년 자녀와의 대화 방법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며, 이들 프로그램 내용 중에 의사소통 방법에 대 한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 9 성인기와 노년기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은 실습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 록 운영해야 한다. 의사소통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론을 이해한다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성인기, 노년기 의사소통 능력 개선을 위해서는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습 위주의 수행 교육이 되어야 한다.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2013년 학부모 학교 참여 길라잡이’ 중 청소년 자녀와의 의사소통 방법과 관련된 교육에는 ‘청소년기 이해’, ‘자녀와 통하는 대화법’, ‘멘토 부모 되기’ 등이 있다.<sup>10</sup> 또 여성가족부 내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에도 자녀의 발달 과정에 맞추어 ‘영유아 자녀를 둔 아버지교육’, ‘아빠, 우리 친구해요(초등학교 자녀를 둔 아버지 대상)’, ‘아동기 자녀를 둔 부부 학교’, ‘청소년기 부모교육’ 등이 있다. 그리고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우리 부부 대화가 달라졌어요’, ‘부부가 연인으로 사는 법’, ‘부부-사랑의 대화’, ‘부부관계증진을 위한 부부의사소통교육’, ‘행복한 소통을 위한 부모의 자기보살핌’ 등 유사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자녀, 남편-아내 간의 의사소통 방법 개선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고부교실(2008)’을, 화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며느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2010)’ 등을 개설한 바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고부간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로 며느리 교육에 초점이 놓여 있다.

이상과 같이 대학과 사회에서 진행되는 성인기의 의사소통 교육은 크게 세 방향으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는 ‘국어화법’, ‘대화의 기법’ 등과 같은 대인 의사소통 전반에 걸친 교육이며, 둘째는 ‘토론’, ‘회의’, ‘프레젠테이션’ 등과 같은 직업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 셋째는 예비부부교육, 예비부모교육, 학부모 교육 등과 같은 가족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이다. 대학교육은 전공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첫째와 둘째 경우처럼 교양 교육의 일환으로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육이 제공되더라도 대부분 필수이수 과목이 아니다. 또 대학 졸업 이후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자기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나, 개인적으로 특별한 동기가 없는 한 가족 의사소

10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가족의사소통’이 매우 약화되어 반영되어 있는 것은 ‘성교육’이나 ‘환경교육’, ‘진로교육’ 등이 별도의 독립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문제이다(서현석, 2013: 370).

[아버지 교육]  
“아버지!

그 특별한 이름”

은 4월 4일은  
인구를 줄이려는  
대개의 교육자들은  
저출산 정책을  
앞을 서 있습니다.

일 시: 9월 18, 25일(목) 19:00~22:00  
장 소: 새구간리커뮤니티센터 교육실(새구간동)  
내 상: 생육아, 초등 자녀를 둔 아버지 10명  
내 용: 도당성리성당을 활용한 아버지 교육

| 회기          | 주 제             | 내 용                                                         |
|-------------|-----------------|-------------------------------------------------------------|
| 1<br>(9/18) | 도당성리<br>지킴이     | 1. 1회: 아버지를 통해 자녀교육의<br>요소를 이해하고, 교육의 중요성을<br>인식한다.         |
| 2<br>(9/18) | 김영명             | 2. 2회: 아버지로서 자녀교육의<br>역할을 이해한다.                             |
| 3<br>(9/25) | 한재진(의사소<br>통가족) | 3. 3회: 부모가 되기 위한, 자녀 교육<br>방법과, 자녀교육에 있어<br>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 4<br>(9/25) | 아버지 기 세         | 4. 4회: 가족관계 교육<br>내용: 내 마음 알기, 솔직한 감정 및 의사표현 연습<br>등        |

선 정: 전화 신청 ☎ 609-1545

담 당: 교육지원팀 최은복

...부서: 여성가족부(인민행정부)인민행정부...부서: 새구간리커뮤니티센터

고부관계향상교육 “머느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

센터

행사

접수

참여

참가

참여

진행

첨부

진행

진행

신청하기

영유아, 초등자녀 둔 아버지 10명

2일, 4회기, 총 6시간

내용: 가족-부모, 자녀의 의사소통의 요소, 아버지  
역할 등

머느리 30명, 3회, 총 6시간

내용: 내 마음 알기, 솔직한 감정 및 의사표현 연습  
등

자료 2. 성인기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의 예2

통에 대한 교육을 별도로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개 자녀가 생기면서 가정 내 역할 변화에 따른 의사소통에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의사소통교육에 대한 요구가 발생한다.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에서 가족 의사소통 교육과 관련된 유사한 여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개인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고 자발적으로 수강 신청을 해야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는 상황이다. 또 중년기, 장년기의 의사소통 교육이 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부모지원 정책과 여성가족부의 가족 정책에 따른 것이다 보니 대부분 가족 관계 내의 의사소통 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가족 범위를 벗어나 성인의 사회적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평생교육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에서 성인 학습이 이루어지거나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교양교

육, 문화 예술 교육, 시민 참여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에 초점이 놓여 있는 프로그램 역시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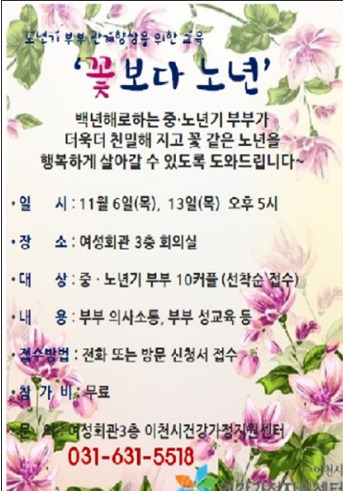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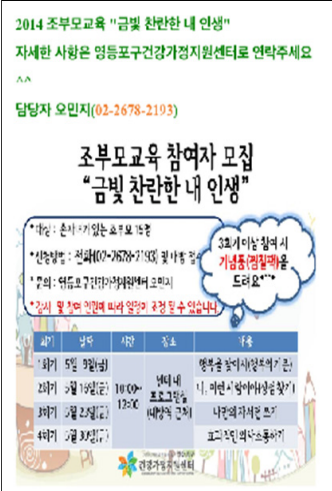
### 3. 노년기의 의사소통 교육

노년기가 되면 은퇴를 하고 자녀들도 독립해서 가정을 떠나는 시기이므로 부부 간에 함께 할 시간이 많아지게 된다. 노부부로만 구성된 단독가구의 경우 부부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전제된다면 친밀감과 결속감이 더 증진될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발달 단계에 따른 성역할 변화 및 역할 전환 등의 변화가 있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지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부딪히게 될 수도 있다(박은아·이정우, 2005: 23).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혼인 건수 32만 5016건이고 이혼 건수는 11만 5725건으로 결혼한 2.8쌍 중 1쌍이 이혼하는 셈인데 특이한 점은 이 중 황혼이혼이 28.1%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것이다(조선일보, 2014. 10. 23일자 기사). 가정 내 부부 간의 지위가 동등해지고,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변화하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이 변화되면서 노년기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황혼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노년교육 기관에서 개설하고 있는 노부부 간의 의사소통 개선 프로그램은 부부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문제를 완화,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황혼 이혼 예방에 도움이 된다.

노인교실, 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회관, 노인대학 등의 노년교육 기관에서 노년기 생활교육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인간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다른 주제에 비하여 교육이 그리 활발한 편은 아니다.<sup>11)</sup> 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노년층을 대상으

11 강영식·박병관(2008: 328)에서는 24개 노인복지관 내 노인교육프로그램 중 지성(42.4%), 건강(36.3%) 관련 프로그램 비중이 높은데 비해 정서적(19.0%), 사회적(1.3%)

로 ‘(중)노년기 부부학교’, ‘꽃보다 노년’, ‘998브라보 노년’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한 바 있는데 이들 내용에 노부부 간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이 다루어지고 있다.

|                                                                                   |                                                                                                                                                                                                                                                                                                                                                                                                                                                                                                                                                                                                                                                                                                                                                                                                                                                            |
|-----------------------------------------------------------------------------------|------------------------------------------------------------------------------------------------------------------------------------------------------------------------------------------------------------------------------------------------------------------------------------------------------------------------------------------------------------------------------------------------------------------------------------------------------------------------------------------------------------------------------------------------------------------------------------------------------------------------------------------------------------------------------------------------------------------------------------------------------------------------------------------------------------------------------------------------------------|
|  |  |
| <p>내용: 부부의사소통, 부부 성교육</p>                                                         | <p>조부모 15명, 4회, 총8시간<br/>내용: 1) 행복을 찾아서, 2) 나 이런 사람이야,<br/>3) 나만의 자서전 쓰기, 4) 효과적인<br/>의사소통하기</p>                                                                                                                                                                                                                                                                                                                                                                                                                                                                                                                                                                                                                                                                                                                                                           |

자료 3. 노년기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의 예

노년기에 겪는 갈등 중의 하나가 노부부와 자녀, 시부모-며느리, 사위-장모 간의 갈등이다.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아들이 국제결혼을 한 농촌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시부모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부교실’, ‘며느리가 꿈꾸는 행복한 세상’ 등은 고부간의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교육이지만 며느리를 주 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시부모, 장인 장모, 장·중년기 자녀를 둔 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자녀들과의 의

프로그램의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사소통 방법에 대한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최근 손 자녀를 돌보는 노년층이 많아지면 조부모 교육을 위하여 손자녀와의 의사소통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다.

## V. 생애주기별 의사소통 교육의 지향점

이 연구에서 생애주기별 의사소통 과업과 역할 변화, 생애주기별 의사소통 교육의 현황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인기 이전의 공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육은 주로 국어과 교육의 듣기·말하기 영역, 화법 과목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청년기에는 대학의 교양 교육에서 선택적으로 대인, 직업, 가족 의사소통 교육이 이루어지며, 중, 장년기에는 학부모교육, 가족 통합 교육의 차원에서 가족 의사소통 교육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노년기에는 부부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으나 지성,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비하면 매우 비중이 낮다.

생애주기에 따라 상대방과 역할 관계, 심리적 발달 상태 등 여러 요인에 의하여 의사소통자로서의 역할도 변하게 된다. 인간의 생애에 보편적인 변화 과정이 있으며 각 주기별로 겪게 되는 문제 역시 경향성을 가지므로 시기별로 상황에 맞는 과제가 있다는 관점은 교육적으로 매우 유용하다. 생애주기별 의사소통교육은 궁극적으로 자신과 상대방의 역할을 인식하고 조정, 적응하는 과정에 필요한 의사소통 지식, 기능, 태도 등에 대한 교수-학습이다. 의사소통자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참여자로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의사소통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한다. 향후 생애주기별 의사소통 교육이 발전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교과교육으로서 국어과 교육이 초·중·고등학생의 국어사용 능력

신장을 교육 목표로 두더라도 국어교육학 연구자들은 고등학교 이후 성인의 국어사용 능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평생교육으로서 성인의 의사소통 교육에 대하여 이론적, 실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연구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거시적으로 본다면 학교교육도 평생교육의 일부분이며, 평생교육의 관점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은 가족생활, 사회생활에 매우 기본적인 중요한 것이다. 개인의 생애주기와 상황에 따라 체계적인 의사소통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의사소통 과업과 역할 변화, 의사소통 실태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관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의사소통 관련 중복 프로그램을 줄이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의사소통 교육의 경우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구체적인 교육 내용을 계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기, 노년기의 의사소통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여러 기관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중복된 프로그램이나, 필요하나 개설되지 않은 교육 내용도 있다.

셋째, 생애주기는 전환기를 거쳐 다음 주기로 넘어가는데 전후 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과정이므로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현재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예비부부교육, 예비부모교육이 다음 시기에 도래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장년기에서 중년기로,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다음 생애주기에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을 미리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의사소통교육은 갈등이 발생한 뒤에 갈등을 조정, 완화할 수 있게 하는 것보다 인간관계가 갈등으로 인해 손상되기 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더 필요하다.

넷째, 장년기, 중년기의 의사소통 교육이 주로 부부, 부모-자녀 간 관계 개선과 의사소통 방법에 중심이 놓여 있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교육 지원을 하다 보니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의 장년기, 중년기의 의사소통교육은 거의 없다.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 자녀는 없지만 이들 역시

부모와 형제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들의 생애주기에 맞는 부모, 형제와의 의사소통에서 갈등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또 이러한 독신 중장년층을 위한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 역시 필요하다. 노년기 교육 중 의사소통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적지만 그나마 부부, 노부모-자녀 간의 가족 의사소통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다. 독신으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을 위한 대인 의사소통 교육 역시 제공되어야 한다.

다섯째, 대학교육 이후 성인층, 노년층을 위한 시민소양 교육, 시민 의식 제발,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통합적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의사소통 능력이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 유지,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기도 하지만 한 인간으로,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성숙,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좋은 도구이기도 하다.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소규모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여 정기적으로 모여 사회 현안에 대해 토론이나 협상을 하게 하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면서 동시에 사회적 교류를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유도할 수 있다.

여섯째, 생애주기에 따라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어떤 의사소통 교육 내용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기의 의사소통 교육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대부분 이루어지지만, 성인기의 의사소통 교육부터는 개인이 해당 교육기관 프로그램 중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실제 교육이 실현된다. 즉, 개인이 의사소통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 수강 신청을 하고, 참석을 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교육에 대한 개인의 자발적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개인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고,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교육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

인간의 삶은 타인과 의사소통 과정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학생, 자녀, 사회인으로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기도 하지만, 학교 교육을 통하여 배우기도 한다. 대학 졸업 이후 생애사적 변화가 크지만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어떻게 의사소통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울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역할이 생애주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처럼 학교 교육 이후에도 각자의 역할에 맞게 주변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 본 논문은 2015. 1. 31. 투고되었으며, 2015. 2. 4. 심사가 시작되어 2015. 3. 3.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 강영식·박병관(2008), 「노인의 욕구영역에 따른 노인복지관 노인교육프로그램의 선택 속성」, 『노인복지연구』 41, pp. 327-352.
- 교육과학기술부(2011),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
- \_\_\_\_\_ (2012),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 \_\_\_\_\_ (2012), 누리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6호.
- 김애순(2004), 『성인발달과 생애설계』, 시그마프레스.
- \_\_\_\_\_ (2005), 『청년기 갈등과 자기 이해』, 시그마프레스.
- \_\_\_\_\_ (2012), 『장노년 심리학』, 시그마프레스.
- 김유경 외(2009),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정엽·이재모(2010), 「노인교육에 관한 노인의 욕구분석: 노인의 연령별 차이를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18집 1호, pp. 75-101.
- 김한별(2014), 『평생교육론』, 학지사.
- 나향진 외(2011), 『평생교육론』, 양서원.
- 노영주·서동인·원효종 옮김(2003),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하우. / K. M. Galvin & B. J. Brommel (1986), *Family Communication*.
- 박시내(2014),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II)—생애과정 전환요인 분석』, 2014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1권, 통계개발원.
- 박시내·박준오·류광현(2013), 『인구센서스 생애주기 분석(I)—가족 및 개인의 생애주기 특성 분석』, 2013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2권, 통계개발원.
- 박은아·이정우(2005), 「부부단독가구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및 관련변인 연구」, 『가정관리학회지』 23권 2호, pp. 23-36.
- 박재현(2013), 「한국 중고생의 부모-자녀 대화 양상」, 『화법연구』 23권, 한국화법학회, pp. 275-302.
- 박호란 외 역(2013), 『생애주기에 걸친 성장발달과 건강증진』, 엘스비어코리아. / G. Leifer & E. Fleck (2012), *Growth and development across the lifespan: a health promotion focus*.
- 서현석(2013), 「청소년의 말 문화 개선을 위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구성 방안에 관한 연구」, 『화법연구』 22권, 한국화법학회, pp. 355-381.
- 성문선 역(1988), 『사람 만들기』, 홍익제. / V. Satir (1972), *Peoplemaking*, Science and Behavior Books, INC.
- 이정숙·김국태·박창균(2010), 「한국 부모-자녀 대화의 소통 방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권 3호, pp. 343-372.
- 이종주·이종연(201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동향」, 『상담학연구』 15권 2호,

- 한국상담학회.
- 이찬규 옮김(2003), 『언어 커뮤니케이션』, 한국문화사.
- 임칠성 옮김(1995),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집문당.
- \_\_\_\_\_(1997), 『대인의사소통』, 한국문화사. / K. K. Reardon (1987), *Interpersonal Communication - Where Minds Meet*.
- 전은주(2013), 「담화 유형 교육의 계속성—초·중등학교와 대학 화법 교육의 연계성 측면에서」, 『국어교육연구』 32, 서울대국어교육연구소, pp. 513-545.
- 최은수 역(2010), 『성인학습자』, 아카데미프레스. / M. S. Knowles, E. F. Holton III, R. A. Swanson (2005), *Adult learner: the definitive classic in adult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6th).
- 통계청(2014), 생애주기별 주요 특성 분석, 통계청 보도 자료(2014.11.18). <http://kostat.go.kr>.
- 한정란 외(2006), 『세계의 노인교육』, 학지사.

## 생애주기별 의사소통 과업과 교육

전은주

이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발달 특성에 비추어 각 시기별 의사소통 과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생애주기별 의사소통 교육의 현황과 발전적 교육 방향을 탐색하였다.

성인기 이전의 공교육에서 의사소통 교육은 주로 국어과 교육의 듣기·말하기 영역, 화법 과목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청년기에는 대학 교양 교육에서 선택적으로 대인, 직업, 가족 의사소통 교육이 이루어지며, 중, 장년기에는 학부모교육, 가족 통합 교육의 차원에서 가족 의사소통 교육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진다. 노년기에는 부부 의사소통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고 있어 나 지성, 건강 교육 프로그램에 비하면 매우 비중이 낮다.

향후 생애주기별 의사소통 교육이 발전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 1) 생애주기에 따른 의사소통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이에 기반하여 프로그램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2) 기관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의사소통 관련 중복 프로그램을 줄이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3) 전환기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4) 독신인 장년층, 중년층을 위한 의사소통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성인층, 노년층을 위한 시민소양 교육, 시민 의식 계발,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통합적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 평생교육으로서 성인의 의사소통 교육에 대하여 이론적, 실천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국어교육학의 연구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핵심어** 평생교육, 의사소통 교육, 화법, 의사소통 과업, 생애주기

## Communication Task and its Education Based on the Life Cycle

Jeon Eunju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communication tasks for each stage of life cycle and explored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communication education at each stage of one's life. The preadult public education for communication is mainly provided during listening-speech and speech communication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However, during young adult stage, education on the interpersonal, occupational and intra-familial communication is selectively provided during the liberal education in the university. In the early and late middle ages, education is mainly focused on the intra-familial communication in terms of parental and integrated family education. In the elderly stage, education on the interspouse communication is provided to a much less degree, compared with those of intellectual and health education programs.

Following issues need to be solved for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education based on the stages of life cycle.

1)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based on the exact feature of the communication for each stage of life. 2) In terms communication programs, overlapping ones need to be deleted and systematized. 3) Education programs for the life transitional period should be diversified. 4) Communication programs are needed for the singles at their early and late middle ages. 5) Integrated programs for communication education are needed which support citizenship and social participation of the adult and elderly. 6) Research field of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should be extended in order to support the communication education of the

adult as a life-long education both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KEYWORDS** life-long education, communication education, speech communication, communication task, life cycle